

# 완도군-광주과학기술원,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속도

농수축산업 연계 사업 발굴 목표 경영 아카데미 장학생 선발 등 기술·인재양성 4개 분야 협력 기반시설 조성·바이오 소재 개발

완도군이 광주과학기술원과 손을 잡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양 기관은 교육·기술, 인재 양성 등 4개 분야를 협력해 해양바이오산업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지난달 25일 군청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해양 바이오 기술 협력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완도군이 광주과

학기술원과 함께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등 기반 시설 조성 및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 협력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임기철 GIST 총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양바이오 분야 특화 산업 유치 등을 위한 교육 및 기술협력 △4차산업과 농수축산업 연계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선정 공동 협력 △완도군 교육 발전 및 지역 인재 양성 협력 △광주과학기술원 기술 경영 아카데미(GT MBA) 교육 과정 개설 및 장학생 선발 등이다.

신우철완도군수는“광주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 연구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간다면 군에서 역점 추진 중인 해양바이오산업 발



지난달 25일 완도군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완도군 제공

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기철 GIST 총장은“완도의 해양 자원과 GIST의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이 만난다면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거점

도시 구축이라는 완도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남군, 미국 LA한인축제 참가 고추장 등 지역 농식품 홍보

해남군은 지난달 26~29일 미국 LA한인축제에 참가해 관내 기업의 농식품 판촉과 함께 다양한 해남 농식품을 전시 홍보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51회째를 맞은 LA한인축제는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최대 축제라고 자랑을 그리워하는 동포들 뿐만 아니라 K-푸드의 인기로 힘입어 미국 시민들도 대거 방문하면서 그 어느해보다 축제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해남군은 관내 ‘이음식품’과 ‘해남에다’를 비롯해 2개 업체가 참여해 참기름과 들기름,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의 전통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농식품을 선보였다.

해남군 대표 소평물인 해남미소의 다양한 농식품을 전시 홍보해 해남푸드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군과 참여기업들은 현지 바이어 상담과 마켓시장을 둘러보며 농식품의 미국 수출시장 진출 및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해남군은 앞으로 군과 수출협약을 맺고 있는 미국내 현지마켓인 H마트에서 11월 중 현지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내 수출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하반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구제역 림프스킨 백신 일제 접종 영암군, 4주 후 항체양성률 조사

영암군이 10월 한 달 소·염소의 하반기 구제역 림프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은 2017년 이후 4월과 10월 연 2회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 하반기 일제 접종은 전국의 소·염소 7만600마리가 대상이다. 소 100마리 또는 염소 300마리 이상인 농가는 10월 1~14일 농장주가 영암축협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가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그 이하의 규모의 농가는 영암군에서 수의사를 파견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접종 완료 농가는 반드시 해당 읍면 또는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영암군은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 농가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처분을 내린다.

영암=한교진 기자

강진군 ‘월출산 소풍 가는 날’ 태풍 복상으로 전면 취소

3일부터 5일까지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4회 강진 월출산 소풍 가는 날’ 행사가 제17호 태풍 제비와 제18호 태풍 그라톤 복상에 따라 전면 취소됐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피크닉 도시락 쿠킹투어’, ‘월출산 피크닉 브런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인원이 사전 예약했지만 행사가 취소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3일 목요일 개막식에 있을 ‘핑크퐁과 튠튠의 댄스파티’ 공연도 많은 어린이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무산됐다. ‘월출산 피크닉 브런치’의 경우, 사전예약자들이 사전에 지불했던 체험료(1세트 2만원)는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행사를 취소하고 지난 주말 생했던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피해 농가의 위로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있을 제17호 태풍 제비와 제18호 태풍 그라톤 복상에 따른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지난달 25일 완도군청 관계자들이 소방서와 함께 공공기관 재난 대응 합동 소방 훈련을 시행했다. 완도군 제공

## 완도군, 재난 대응 합동 소방 훈련 실시

완도군이 지난달 25일 군청 앞 주차장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완도소방서와 함께 공공기관 재난 대응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군민 보호 및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 능력과 화재 확산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완도군청 1층 가족행복과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한 △최초 화재 신고 및 경보 전파 △피난 유도 및 대피 △중요 문서 반출 △초동 조치 훈련 △소화기 분사 훈련 △인명 구조 및 응급처치 △화재 진압 훈련 △사후 복구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훈련도 추진했다.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에서는 질식 소화포 사용 방법 설명 및 하부주수관장 장비를 통해 배터리에 직접 물을 분사하는 시연을 하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체 조직된 완도군청 자위소방대의 소화활동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사용법 교육과 실습으로 훈련 효과를 높였다.

군은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역량 강화 및 실효성 높은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 목포시, 이색 골목길 문학축제 연다

5일부터 북교동 일원

목포 문학의 산실이자 한국 문학의 거봉을 다수 배출한 북교동 차범석길 일대에서 골목길 문학축제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문학과 골목 그리고 마을이 만나 펼쳐지는 이색 문학 축제로 골목길, 작가 생가, 빈 집, 마을 공터, 빌라 주차장, 게스트하우스, 교회 주차장 등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문학의 색으로 입혀 색다르게 만날 수 있어 특별한 재미를 제공한다.

시월에 문학여행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는 ‘문학, 유토피아 문학마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막식, 골목길 문학 전시, 공연, 체험 및 독립서점 페어, 차범석 탄생 100주년 행사 등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5일 개막식에서는 제16회 목포문학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퓨전 국악그룹 ‘루트머스’ 공연과 함께 가수 최백호의 낭만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차범석길 화가의 집 야외마당에서는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됐던 희곡연전 수상작 천승세 작가의 ‘포대령’이 극단 동양레퍼토리에 의해 낭독극으로 만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북교동 마을 골목길 곳곳은 문학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해 만나게 된다. 극작가 차범석 작가의 생가가 있었던 자리인 현 빌라 주차장에서는 차범석 작가의 문학을 피아노와 클래식 공연, 몸짓 퍼포먼스로 즐길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만의 이색 책방 콘테스트도 진행된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근대 이상 체험을 할 수도 있으며 예쁘게 조성된 할머니집 정원에서 꽃 구경도 볼거리다.

마을 골목길에서 다양한 7080 추억 여행도 떠나 볼 수 있다. 그동안 비어있던 옛 현진슈퍼 건물에는 추억의 문방구와 만화방으로 바뀌어 누구나 편하게 만화를 보며 추억의 문방구 놀이도 할 수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시민시낭송대회, 딱지왕&어린이문학캠프, 주민 시화전, 박화성 백일장대회 등이 개최되며, 만티볼도서관 2층에는 예술로 지원 사업으로 북교동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북교동 아카이브 전시가 진행된다.

올해는 극작가 차범석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행사가 특별 이벤트로 개최된다. 그림으로 만나는 드라마 전원일기 야외 전시, 차범석 전국 청소년 독백대회, 연극공연, 학술대회, 목포대 국문과 학생들의 차범석 작품 스토리텔링 행사 등도 볼거리다.

차범석 작가 외에도 목포출신 김우진, 박화성, 김현 선생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해보는 4인4색 문학제도 함께 행사 기간 동안 개최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 강진군 ‘청렴 골든벨’ 개최 공직자 대상 청렴 의식 제고

강진군이 지난달 30일 강진군 푸소센터에서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도전!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는 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응원단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부서장들이 직접 출제된 문제풀이에 적극 참가해 이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참여형 청렴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해 OX문제풀이, 4지선다형, 주관식 문제풀이 등 총 30문항을 서바이벌 퀴즈 형식으로 진행했다.

대회 결과 민원봉사과 서은서 주무관이 최후의 1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서별 응원상은 도암면, 군민행복과, 고려정자 박물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는 부서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열띤 응원으로 청렴으로 소통·화합하는 장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며 “직원들 간 청렴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